

▶▶ 협회소식



◀ '무너지는 중소병원..' 정책토론회

- 일시 : 2005. 8. 23
- 장소 : 국회도서관 강당

정형근 의원실 주최로 열린 '무너지는 중소병원 어떻게 할 것인가?' 주제 정책토론 지정토의에서 천안충무병원 권영욱 이사장은 "21세기 IT에 기반을 둔 BT가 주력산업으로 병원이 세계화되고 우리나라가 전세계 의료허브가 되면 제조업의 4배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과 부수적으로 의료장비·제약 산업 발달을 함께 가져올 수 있다"며 영리법 인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역설했다.



◀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반대

- 일시 : 2005. 8. 29

환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가능토록 하는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제 3자에 대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은 의료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교통사고 환자에게만 달리 적용할 그 어떤 명분도 없으며, 개인정보(진료기록) 노출에 따른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란 점을 들어 건교부에 반대 의견을 냈다.



◀ 중환자실 수가적정화 건의

- 일시 : 2005. 9. 12

집중치료실(중환자실)에 관한 시설, 장비 기준 마련에 대해 병원계는 기준강화에 앞서 현재 원가의 40%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정상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

◀ 투명사회실천협약 체결

- 일시 : 2005. 9. 13
- 장소 : 프레스센터

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, 의료기관의 투명경영 실천 등을 강령으로 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약이 체결되어 의약계가 자정활동 등으로 보건의료 관련 국민 불신 해소를 통한 신뢰회복에 본격 나선다.



◀ IHF 2007 서울 총회, 유태전 회장 국제 운영위원 피선

- 일시 : 2005. 9.19~23
- 장소 : 프랑스 니스

본회 유태전 회장이 9월 22일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된 국제병원연맹(IHF) 총회에서 임기 6년의 국제이사(운영위원)에 피선됐다. 유회장은 IHF 운영위원회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6명의 위원 선출에서 최다 득표로 운영위원에 선출됐다. 이번 2005 IHF 총회에선 유 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본회 대표단이 참석, 2007년 서울 총회를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상당수 회원국으로부터 참가 및 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큰 결실을 거뒀다.



◀ 제1차 의료산업선진화특별위원회

- 일시 : 2005. 10.13
- 장소 : 본회 소회의실

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, 활동과 관련 병원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·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. 본회는 제1차 의료산업선진화특별위원회를 열어 의료산업의 발전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산업진흥, 고용창출 등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료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영리법인 허용,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을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.



◀ 관 주도 독립 의료기관평가기구 반대

- 일시 : 2005. 10.15

의료기관평가를 정부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에 한하여 위탁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개정안(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대표발의)에 대해 '의료공급자를 배제한채 사실상 관주도로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운영하려는 것'으로 규정하고,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.



◀ 조류독감 긴급 전문가 좌담회 개최

- 일시 : 2005. 10.18
- 장소 : 본회 소회의실

조류독감 발생에 대비해 정부는 현재 70만명 분의 치료제(타미플루)를 비축하고 인체감염을 막기위한 역학조사 및 만약의 경우 대량환자 발생시 응급환자 진료대책 등 제반 대책수립에 부심하고 있다. 이덕형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부장은 18일 오후 본회가 개최한 조류독감예방 전문가 좌담회에서 이같이 정부 대책을 밝혔다.